



2011 오산시의회 해외연수 보고

- 일본 가나자와시 일원 -

● 연수기간 : 2011. 7. 17 ~ 7. 20(3박 4일)

● 연 수 국 : 일본

□ 연수인원 : 16명



2011년 7월

오 산 시 의 회

I.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행국 : 일본

2. 여행목적

유네스코에서 창조도시로 지정한 가나자와시의 문화계승 및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확인과 현지 실사를 통한 체험 실시

3. 여행기간 : 2011. 7. 17(일)~7. 20(수) (3박4일)

4. 보고서 작성자 : 김진원 의장외 4인

5. 여행자 인적 사항

번호	소 속	성 명	비 고
1	오산시의회 의장	김진원	
2	오산시의회 부의장	최인혜	
3	오산시의회 의원	김미정	
4	오산시의회 의원	손정환	
5	오산시의회 의원	최웅수	
6	의회사무과 과장	이수영	
7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강선규	
8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심기택	
9	의회사무과 직원	최현실	
10	오산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	홍취표	
11	오산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이종수	
12	오산시 문화공보담당관 홍보관리	박영춘	
13	오산시 지역경제과 고용정책담당	서정욱	
14	오산시 건설과 자전거도로(담당)	강동희	
15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김준호	
16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연구원	이경용	

6. 연수내용

- 예술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및 구도심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정책
- 시민예술촌 등 독창적 문화정책
- 자전거 활성화 정책

II. 연수일정

날 짜	시 간	내 용	비 고
2011/ 7/17 (일)	09:05~10:50	인천(출발)- 고마초공항 도착	KE775
	11:50~12:30	가나자와 시내로 이동	
	12:40~13:40	점심식사	
	13:40~15:30	일본 전통공원(겐로쿠엔) 및 가나자와성 학	
	15:30~16:00	호텔이동 및 체크인	가나자와 뉴그랜드호텔
	16:00~18:00	자전거도로정책-자전거를 타고 시가지정비 사례 및 경관시찰	
	18:00~18:50	저녁식사	
	19:00~22:00	세미나:가나자와시의 자전거정책과 시민과의 협동 추진에 관하여	
2011/ 7/18 (월)	08:30	호텔로비 집합	
	08:40~09:00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으로 이동	
	09:00~11:00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견학 및 설명회	
	11:00~11:30	유와구 창작의 숲으로 이동	
	11:30~13:00	점심식사	
	13:00~15:00	유와구 창작의 숲 설명회, 유와구 창작의 숲 견학 및 체험	
	15:00~15:30	우다초산 공예공방으로 이동	
	15:30~16:30	전통문화산업육성 사례(공예공방)시찰	
	16:30~17:15	아트구미 설명회	
	17:15~17:35	호텔로 이동	
	19:00~20:00	저녁식사	
	20:00~22:00	가나자와 야간경관시찰 및 숙박	
2011/ 7/19 (화)	09:00	호텔로비 집합	
	09:00~09:15	재래시장으로 이동	
	09:15~10:45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오미조시장관) 설명회 및 시장견학	
	10:45~11:15	가나자와 시청으로 이동	
	11:15~11:30	가나자와 의회 의장 접견	의회회의실
	11:30~12:00	가나자와 의회 의원 간담회 및 의회시찰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가나자와의 지역활성화정책 설명회 가나자와 마을만들기 시민기구 및 학생의 마을 설명회	가나자와 시청
	15:00~15:30	시민예술촌으로 이동	
	15:30~17:00	시민예술촌 및 장인대학 설명회, 시민예술촌 및 장인대학 견학	
	17:00~21:00	호텔로 이동- 휴식, 저녁식사	
2011/ 7/20 (수)	09:20	체크아웃 및 호텔로비 집합	
	09:30~10:30	고마초공항으로 이동	
	12:00~14:00	고마초 출발 - 인천공항 도착	KE776

Ⅲ. 다녀와서....

- 이 번 가나자와 연수에 대한 느낌을 요약해서 표현한다는 게 어렵긴 하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노력속에서 전통과 산업을 융합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찾아낼 줄 아는 “**현명함**”과 현재의 화려하고 편리함으로부터 전통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낯음에 대한 존중과 자부심**”을 가진 이들을 만나고 왔다고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그 동력이 관(官)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러움이 가슴에 남는 일정이었다.
- 옛 게이샤들이 살던 집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가 하면 현대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21세기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어 과거의 흔적과 현대적인 삶이 공존하며, 건축물과 시설물 중에는 정말 재개발이 필요할 정도로 노후되어 보이는 것도 있어 현대식 건축경관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오묘하게 조화되고 있어 재미있는 도시라는 생각을 했는데
- 알고보니 92년 가나자와시와 의회가 선포한 경관도시선언을 밑바탕으로 한 마을보존조례(1994년), 옥외광고물 조례(1995년), 용수보존조례(1996년), 경사면 녹지보전조례(1997), 절·신사 풍경보존조례(2002년), 조망경관조례(2003년), 연도경관형성조례(2005년), 야간경관형성조례(2005년) 등 각종 제도적 뒷받침과 전통적,문화적 자산을 계승하는 경관만들기에 시민들의 동참이 합해진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四 가나자와 市 현황

가. 지명유래

- 가나자와의 지명은 옛날에 이모호리토고로(芋掘藤五郎)라는 사람이 사금(砂金)을 씻었던 습지를 ‘가네아라이사와(金洗澤)’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고,
- 일설에 의하면 현재의 겐로쿠엔 일대가 가나자와고(金澤郷) 혹은 가나자와노쇼(金澤莊)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

나. 인 구 : 약 45만인

다. 면 적 : 467.77㎢(오산시의 약11배)

라. 조직현황

- 1) 시의회 : 의원 40명
- 2) 공무원 : 3,190명

마. 재정규모

- 3,123억 8,961만 7천 엔(일반회계 1,632억 2,000만 엔)

바. 주요산업

- 금박공예(일본 전국의 98%)
- 은박공예(일본 전국의 100%), 도자기, 염색, 칠기 등 전통공예산업과 직물, 간장, 술 등 채래산업

사. 역사적 특징

- 교토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는 물론 전쟁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며 전국시대부터 마에다 가문(前田家)의 통치하에서 학술문화와 예술공예 도시를 표방

아. 기 타

- 교토와 같이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이며 이시가와현의 현청 소재지
- 2009년 공예부문 창조도시(유네스코 지정)
- 야마데 타모츠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일관된 정책이 큰 역할(20년간 재임)
(2010년 시의원 출신의 야마노 유키요시가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



1. 가나자와 성, 겐로쿠엔

가. 가나자와 성

○ 일반현황

- 건축시기 : 1583년
- 면 적 : 약 9만여평
- 마에다가문(前田家)의 대저택
에도시대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우두머리 가신인 마에다 도이시에[前田利家] 이후로
14대 285년에 걸쳐 가가번을 지배한 가문

- 여러번의 대화재로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
되고 1788년 건축한 가나자와성의 후문인 이
시카와몬[石川門]만이 무사히 남아 국가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

- 복원을 위하여 성내에 있던 각종 공공시설
들을 이전하였으나 반면 공공시설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



- 7월 한 더위에 함박눈이 내린 것처럼 보이는 지붕은 납이 많이 함유된 기와를 사용한 것인데 당시 방화용 뿐 아니라 유사시는 방탄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고 함(방탄기능은 믿거나 말거나라는 현지 해설사의 설명)
-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본목조축조 공법으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대들보와 기둥을 짜 맞춰 건물내부를 만듦.

나. 겐로쿠엔

○ 일반현황

- 조성시기 : 1676년 5대 영주 마에다 쓰나노리[前田綱紀]가 성안에 정자를 짓고 주위에 정원을 조성한 것을 시초로 하여 제13대 영주 나리야스가 연못조성 등 기본구조 완성(당시 개인정원)

- 형 식 :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임천회유식(林泉廻遊式)정원

(임천회유식정원 - 나무와 흐르는 물, 연못 등이 있는 정원)

- 면 적 : 약 3만여평

- 수목의 종류 : 183종

수 목 수 : 8,750그루

- 1985년 특별명승으로 승격지정

○ 보통 3~400년된 나무가 많았으며 수명이

다한 고목은 종자를 받아 다시

심어 맥(脈)을 잇는다고 함.

(전통을 중요시하는 가나자와다움)

○ 겐로쿠엔이라는 이름은 이 정원의

6가지 뛰어남(광대함, 한적함, 인공미, 고색

창연, 풍부한 물, 아름다운 조망)을 지니고

있는데서 유래.

○ 공원내에는 에도시대 말기(1850년경)에

만들어진 일본 최고(最古)의

분수가 있어 높이 3.5m까지 물줄기를 뿜어 올리고

있는데 분수의 동력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공원 정상부의 연못을 수원으로

하며 높이 차에 의한 수압을 동력으로 한다고 함.



○ 봄에는 각종 벚꽃,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나무를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우산살 형태의 '유키즈리'가 정취있는 풍경을 연출하고 유키즈리에 쌓여있는 눈의 풍경은 겨울 가나자와 시의 대표풍물이 될 정도로 독특한 풍경으로 매년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함.



첫날 점심



2. 가나자와 시의 자전거 정책에 대하여

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정책의 주소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 개설은 지난 '1995년 1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1999년 자전거타기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된 후 국가보조사업이 시행되면서 본격화
- 2004년 7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결정되고 2005년부터 자전거도로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되면서 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 개설은 급격히 줄기 시작했으나 최근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면서 녹색교통인 자전거와 보행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 아직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다른 현안보다 예산반영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자전거 도로네트워크의 형성과 위험요소의 제거를 위한 환경개선 투자에 매우 소극적임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나. 가나자와 자전거 정책

- 가나자와 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기에는 너무 위험요소가 많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1976부터 11년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410km를 개설하고 2000년부터 가나자와의 자전거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를 결성

- 자전거전용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토지매입 및 공사비용이 10m당 약130만엔이 소요되는 비경제성으로 현실성이 떨어져 기존 자동차도로를 사용하는 공존도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속도와 충돌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설치지역의 검토시는 차량속도, 통행량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선정하고 있고 자전거 운행시 시야를 방해하는 교차로내 설치물(가로수, 교통시설물 등)의 제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자전거에서 내리는 구간



- 시민단체는 고등학생의 70%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데 착안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면서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 스스로 자전거지도를 작성하고 위험지역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내용을 토대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형태로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행정기관은 그것을 지원하여 환경을 개선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진정한 거버넌스(協治)가 형성되어 있었음.



-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주민이 아닌 통과차량은 시내 일부도로를 일정시간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역민 확인카드 발급)한 구간이 있어 우리로서는 실현이 어려운(민원) 부분에서 한수 위라는 생각이 들었음.



- 또한 차(車)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인도(人道)를 다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노르웨이 정도로 아주 드물다고 함.
자동차로부터 자전거통행안전을 확보하는 노력만큼 자전거에 의한 보행 환경의 침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임.

다. 그래서...

-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대안으로 자전거 출퇴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도로 체계 등 기반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게 현실임에 따라 물리적 환경개선에 좀더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자동차 포기에 대한 인센티브(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나 자전거와 연동보험 적용, 세금감면)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자동차 이용자의 편리함을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도로다이어트, 보도확장 등)현실적인 정책과 함께 전문가와 시민 단체의 연계를 통해 자전거이용환경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가나자와 문화정책에 대하여

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 일반현황

- 별칭 : 마루비(동근 미술관)
- 면적 : 약 26,964m²(연면적 27,761m², 지하 2층, 지상2층)



金沢21世紀美術館

- 건축설계 : 세지마 가즈요(妹島和世)와 니시자와 류에(西澤立衛)의 SANAA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즈커” 상을 수상-2010년)
- 형 태 : 높이 15m, 직경 113m의 정 원형 평면건물
- 사 업 비 : 113억엔
- 사업기간 : 2002년 4월 ~ 2004년 10월
- 운 영 : 위탁(예술창조재단)
- 운영비용 : 약 750백만엔/年
- 재정수입 : 관람료 및 대여료 280백만엔, 책자 등 출판수입 50백만엔
가나자와시 420백만엔 보조(補助)
- 방문자수 : 2004년 개관당시 682천명/年 → 2009년 1,520천명/年
- 특 징 : 각기 다른 천정높이(4~12m)로 전시공간
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함

○ 1994년 도심에 위치한

가나자와대학 부속 유치, 초·중등학교가
이전한 부지에 아마테 타모츠 시장이
당시 시민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포럼 등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매년 15~20여점의 작품을 수집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전시하는 등의 주도면밀한 노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미술관이나 미술관활동에 대한 이해를 얻어내
오늘을 만들어 냄.

- 외관이 원형의 강화유리로 마감되어 있고 건물
내부의 벽면도 유리를 사용하여 투명함과 밝음,
개방적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고 내·외부의 구분이
모호한 미술관 구조가 내부와 외부의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끼리 만남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주면서



○ 형태가 정 원형이라 정면이 따로 없고 서 있는 곳이 정면이 되는 재미있는 구조물임.

○ 미술관 관계자는 이 곳의 성공요인으로 전통적거리에 현대건물이 입지한 **“조화성”**, 도시중심에 입지한 **“중심성”**, 다양한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다양성”**에 있다고 설명

○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의 졸업전을 매년 개최하는 등 전통이 새로운 문화와 만나면서 그 적응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실험의 장소이며 연착륙의 장으로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를 잇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미래문화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아이들이 고유문화를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과 커뮤니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내 소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초대 프로그램, 주말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키즈 스튜디오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예술품 감상은 물론 시민들간 교감의 장소로도 활용되도록 하고 있음.



나. 유와쿠 창작의 숲

○ 일반현황

- 면 적 : 약 90,000m²
- 사 업 비 : 14억엔
- 운 영 : 위탁(예술창조재단)
- 운영공방 : 이축해 놓은 민가에 판화, 실 크스크린, 염색, 직조 등 4개 스튜디오 운영
- 운영비용 : 약 60백만엔/年



- 재정수입 : 가나자와시에서 60~70%를 보조(補助)
- 방문자수 : 26천여명/年(중 숙박객 5%)
- 컨 셉 : 있는 것을 고쳐서 활용
- 인근에 1,300년 전에 개발된 유와쿠 온천 지구가 있어 70년대까지 휴양지로서 활성화된 곳이었으나 쇠퇴 후 단푸엔이라는 전통가옥 전시장(전시공원)으로 운영 중 실패하고 예술창조 공간으로 탈바꿈(2003년 오픈).
- “있는 것을 고쳐서 활용한다” 라는 야마테(前시장)의 구상으로 7개의 고(古)가옥을 이전하여 공방으로 사용 중(사업비의 대부분이 고(古)가옥의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함)
- 공방에는 체험관광팀이 다수이며 어린이들을 위한 장기체험(8일간 숙박)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전문가들도 저렴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이용객이나 프로그램의 종류로 보아
전통문화 체험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느껴졌음.



다. 우타쓰야마 공예공방

- 일반현황
 - 개 설 : 1989년 11월(가나자와 시제 100주년 기념으로 개설)
 - 운 영 : 위탁(예술창조재단)

- 목 적 : 교토와 필적하는 ‘전통 공예 왕국’이라는 가나자와시의 전통 공예 계승과 발전의 도모
- 모 토 : 전통에 혁신의 작업을 더하지 않으면 단순한 전승으로 전락해버린다
- 운영테마



1) 육성한다 : 공예기능자 양성

→ 인재육성이 활동의 중심이며 젊은 공예가들의 연수시설로써 평가받고 있음

2) 보여준다 : 공예작품자료 전시

3) 참가한다 : 공예체험교실 개최

- 연수기간 : 2~3년

- 정 원 : 31명

- 운영공방 : 5개 분야

1) 전통공예(4개) ; 도예, 염색, 금공, 칠예

2) 신(新)분야(1개) : 유리



○ 연수생은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연수비용은 가나자와시에서 지원 (100천엔/월-육성장려금)

아마추어는 들어올 수 없고 전문기술을 가진 자중 작품을 보고 선발하는 데 6~10:1의 경쟁률을 지니고 있음. 나이제한은 원칙적으로는 35세 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출신은 대부분 미술계대학, 미술공예대학, 도쿄예술대학 등에서 선발됨.



- 현재까지 224명이 수료하였으며 그 중 외국인이 11명(한국인 3명, 필리핀인 1명 포함)인데 상대적으로 예술창작활동 환경이 좋은 가나자와 시의 주변에 거주(약50%)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대부분으로 예술에 배고픔이 따른다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음.



- 공예진흥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부모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공예방을 운영(60강좌/년)하고 있음.



- 전시관에 수료자와 강사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으나 전시 수준은 기대 이하였으며 공예공방임에도 불구하고 창작공예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들이 추구하는 운영테마로 비추다면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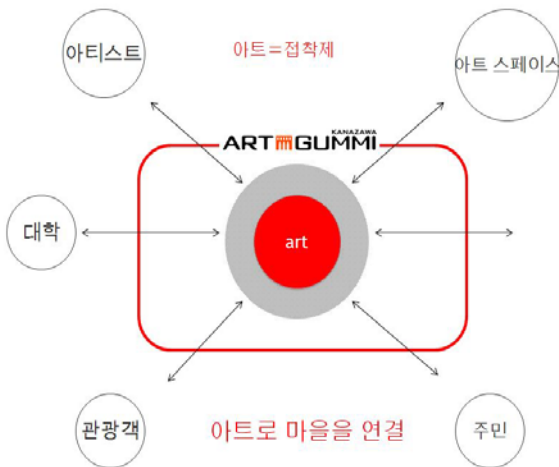
라. 아트구미(비영리 문화운동 시민단체)

○ 개 요

- 「가나자와 마을 만들기 시민연구기구」에서 2006년부터 3년간에 걸쳐 예술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를 해온 멤버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NPO(비영리조직)법인
- 2009년4월 가나자와의 홋코쿠은행(北國銀行)의 지원을 받아 3층에 리모델링 후 갤러리를 오픈하고, 이 장소를 거점으로 전람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 모 토 : 형식적인 패턴을 고집하면 균질화되어 동화되고 창조성을 잃어버린다.



아트구미의 이념



- 「가나자와 아트 구미」 웹을 운영하여 가나자와의 아트스페이스 및 전람회를 소개하는 리포트 이벤트 정보, 갤러리 정보, 아티스트 정보 등을 항상 세계에 발신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최근 5월에는 한·일 전통공예전시전을 개최하였다고 함.
- 전시, 이벤트, 예술을 묶어 상품을 개발하고 인쇄물과 WEB제작, 이벤트연출 등 글로벌 시대 경쟁력 있는 매력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가나자와시의 창조와 문화의 매개역할을 수행
- 갤러리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공간을 조성 및 공개해서 일반 시민들이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했으며
- 지역에 창조인력을 발굴 육성 → 활동 자원의 개발(물리적시설, 문화자원) → 외부예술인구를 유입하여 도심을 활성화하고 내부예술가들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

순환체계를 형성

-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통상 각종 세액 감면, 시설지원 등을 통하여 유인하고 있으나 모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기업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없으며
- 앞으로 기업들은 유능한 인력이 모인 곳에 집적되며, 유능한 고급인력들은 고급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에 모이므로 고급 인력이 모일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어느 칼럼이 생각나는 것은



가나자와시의 지속적인 전통계승과 개발, 창조성을 지역문화에 접목하는 노력으로 강해지고 있는 그들만의 경쟁력에 대한 부러움이 아닌가 싶다.

마. 창조의 캠퍼스 시민예술촌

○ 설립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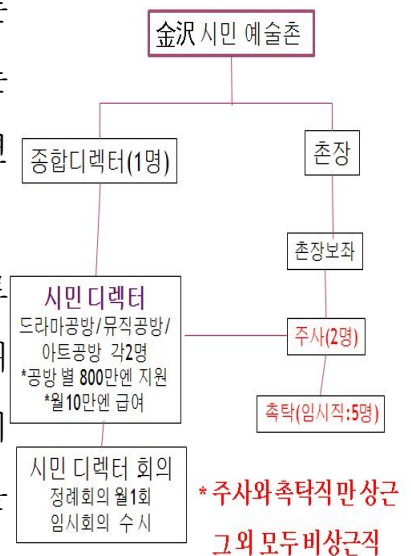
- 1993 : 방적공장 이전부지를 가나자와 토지개발공사에서 취득
- 1994.6 ~ 11 : 다이와마치 창고군 이용조사 검토팀 발족 및 활동 후 시장에게 보고서제출
- 1995. 4 : 예술문화촌 개설준비실발족
- 1995.11 : 디렉터회의 발족
- 1996.10 : 준공식 및 개촌



1997년도의 good design상 대상, 2006년 (재)지역창조 JAFRA어워드(총무대신상)수상

- 설치목적 :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하는 캠퍼스이며 연습 및 성과발표를 하는 장소와 시민의 휴식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

- 경영방식 : 시민참여에 의한 자주적 운영으로 촌장과 사무국에서는 쓰레기와 화재 문제가 아니면 개입하지 않으며 시민중 운영자(디렉터)를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24시간, 365일 개방)



- 사업비 : 약19억엔
- 관리주체 : 위탁(예술창조재단)
- 이용자수 : 약160천명/年

○ 예 산 : 약 1억4천 엔/年

○ 운영내용

1) 프로그램운영

- 드라마공방 : 희극 강좌, 연극인 대상 기초 강좌, 미래연극인 육성 사업 등

- 뮤직공방 : 재즈교류 이벤트, 음악발신 네트워크 사업, 음악초심자 양성 등

- 예술공방 : 무명인 조각가 전, 판화체험 등

2) 시설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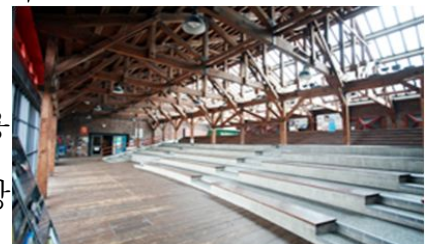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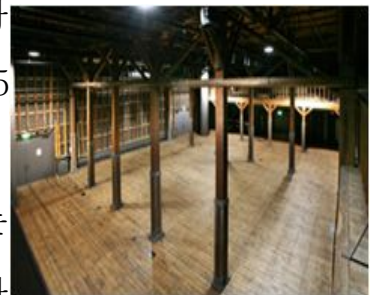
- 멀티공방 :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공방

- 드라마 공방 : 넓은 사각의 공간과 중간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객석도 무대도 없으며 평대를 사용하여 객석과 무대를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

- 뮤직공방 : 나무의 파스함이 감도는 공간에 스테이지가 설치된 중앙 스튜디오가 있고 그 주변을 5개의 연습 스튜디오가 둘러싼 뮤직공방. 5개의 스튜디오 중 A~D의 4개 스튜디오에는 다이코(일본북), 드럼세트, 피아노 중 하나가 갖춰져 있음.

- 오픈 스페이스 : 오픈 스페이스는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실외 수상 스테이지와 계단형 공간에서 휴식

할 수 있는 실내, 앞쪽에 연못이 배치된 개방적인 스페이스는



마음이 온화해지는 장소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시민이
휴식을 위해 또는 물가를 산책
하기 위해 찾아옴.



- 아트공방 : 기성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마추어
부터 아티스트까지 누구라도 제작과
전시를 위해 이용이 가능



- 퍼포밍 스퀘어 : 대인원의 예술활동을 서포트하는 대연
습실과 소연습실을 겸비하여 발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 예술문화에 투자하지 않는 도시는 발전
할 수 없다는 야마데 前시장의 신념에
기초하여 다이쇼(大正)시대에서 쇼와
(昭和)초기에 세워진 빨간 벽돌의
창고건물을 재활용하여 과거와 현재
를 잇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
쇠퇴한 지역을 시민예술촌으로 재생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이들의 거점시설로
이용하는 그들의 시각전환의 기민함을
보며 효율성과 단기적인 경제적 논리에
눌려 철거된 우리의 역사들에 대한
아쉬움과 우리 예술인들의 ‘놀터’는 얼
마나 공간적으로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문을 하게 된다.

시민 예술촌의 시설 이용 상황

액션플랜 사업			
드라마공방	16	138일간	5380명
뮤직공방	22	113일간	6252명
아트공방	26	70일간	4262명
공동사업	1	1일간	75명
합계	65	322일간	15969명

이용상황	
년도	2010년도
이용단체수	15,955
이용자수	161,325
시찰자수/단체수	457/44
레스토랑 이용자수	25,406
내촌자합계	222,621

공연내역		
멀티공방	16	4.2%
드라마공방	68	17.8%
뮤직공방	40	10.5%
아트공방	135	35.3%
퍼포밍 스퀘어	73	19.1%
사도아마의 집	50	13.1%
합계	382	

이용형태	시내	시외
	74.60%	25.43%
이용형태	연습이용	공연이용
	14598건	382건

공연내용별 내역		
연극,무용	102	27%
콘서트	61	16%
전람회	194	51%
그외(광연회)	25	7%
합계	382	100%

시설명	심야0:00 ~6:00	오전6:00 ~12:00	오후12:00 ~18:00	야간18:00 ~24:00
멀티공방	1,050	1,050	1,050	1,050
드라마공방	1,050	1,050	1,050	1,050
제1분장실	525	525	525	525
제2분장실	525	525	525	525
뮤직공방	중형(F) 스튜디오, 8스튜디오 -기본요금 1,050(최초의 2시간까지) 추가 1시간당 기본요금의 5할 A, C, D, E 스튜디오 -기본요금 315(최초의 2시간까지) 추가 1시간당 기본요금의 5할			
아트공방	1,050	1,050	1,050	1,050
퍼포밍 (performing) 스퀘어	대 연습실	-기본요금 2,100(최초의 2시간까지) 추가 1시간당 기본요금의 5할		
	소 연습실1	-기본요금 315(최초의 2시간까지) 추가 1시간당 기본요금의 5할		
	소 연습실2	-기본요금 315(최초의 2시간까지) 추가 1시간당 기본요금의 5할		
사도아마의 집		1,050	1,050	1,050
사우스동	연습실	1,050	1,050	1,050
	제1 회의실	525	525	525
	외실 (일본석방)	1,050	1,050	1,050
다이와초 (大和町) 공방	잔디 광장A	1,050		
	잔디 광장B	1,050		
	휴식 광장A	1,050		
	휴식 광장B	1,050		
	원형 광장	525		

바. 가나자와 장인(職人)대학교

○ 설립목적

- 모임, 제작, 계승, 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고도의 장인기술을 계승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장인기술에 대한 시민강좌의 개설로 시민이 전통적인 장인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하는 것

○ 운 영 : 1996년 8월 (사)가나자와 장인대학교

가나자와시와 9개 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

○ 시설개요

- 관리동 : 2층 건물(584m²)
- 교재창고 : 77m²
- 실습동 : 1,153m²면

○ 교육내용

1) 연수과(본과)

- 연수과목 : 9과목
 - 석공, 기와, 미장, 조경, 대공, 다다미, 창호, 판금, 표구
- 정 원 : 50명
- 취학기간 : 3년간
- 연수일 : 원칙적으로 월 4회
(1회당 120~180분-주로 야간반)
- 학 비 : 무료
- 입학자격
 - 기본적인 기능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경력 10년 이상)으로 30세~50세인 사람 (단 각 업종조합 등의 추천 필요)
 - 자주적으로 연수할 의욕이 있는 사람



수복사 인정증



- 연수내용

- 교양 · 체험 강좌 : 전원 필수, 같은 날 개강
- 실기강좌 : 각 연수 별로 개강

2) 수복(修復)연수과

- 정 원 : 40명
- 취학기간 : 3년간
- 연수일 : 원칙적으로 월4회(원칙적으로 금요일)
- 학 비 : 무료
- 입학자격
 - 본과수료생 및 본과강사로 계속해서 자주적으로 연수 할 의욕이 있는 사람
 - 설계사 ·가나자와시 직원·교원으로 계속적으로 연수를 희망하는 사람
 - 각 업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연수내용

연수일 : 매주 금요일 (강의 19:00 ~ 21:00) • (실습 13:00 ~ 17:00)													
1년	년월	10	11	12	1	2	3	4	5	6	7	8	9
	내용	『강의』						『실측조사 (1)』			『실측조사 (2)』		
		문화재보호제도			건축 기술사	가나자와의 전통건축		스케치	실측 조사	제도	스케치	실측 조사	제도
2년	년월	10	11	12	1	2	3	4	5	6	7	8	9
	내용	사진촬영	『학술조사』		『조사 방법』			『현황조사』		『해체조사』			
			건축물의 가치		파손· 상태· 흔적 등을 조사하는 방법			파손 조사	내진 조사	지붕· 미장· 목구조의 조사			
3년	년월	10	11	12	1	2	3	4	5	6	7	8	9
	내용	『해체조사』						『조사보고서, 모형 등의 작성』					『보고 회』
		목구조· 기초조사			다다미 조사	창호 조사	표구 조사						

- 옛부터 계승되어진 장인의 공예기술과 이념의 계승 및 후계자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마이스터 (Meister) 스쿨을 개교하였는 데 정원은 약 15명으로 월2회 정도 장인의

체험답, 장인문화, 실기 9과에 대한 체험, 역사적 건조물 시찰활동을 시행하는 등 시민 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곳도 최근 장인이 적어지고 후계자 및 학생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가나자와시와 관련단체가 연계하여 학생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계승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장소를 포함한 인프라 제공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취미나 관심차원의 열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장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등 평생을 매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병행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 그래서...

- 이들의 문화 및 역사시설을 포함한 물리적인 자원은 사실상 우리에게 비하여 크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다. 다만, 그들은 그 자원들을 문화와 예술의 도시, 창조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되며 짜임새 있게 잘 엮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고 그 과정에는 시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준 높은 참여와 의식수준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별한 것 같다.
- 아직은 행정편의 주의적이고 관(官)이 주도적인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반성하고 다소 느리고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비효율적이더라도 주민들을 정책에 참여시켜 지역 공동 현안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고민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행정기관이 주안점을 두어야 할 목표가 아닌가 싶다.

4. 가나자와의 지역 활성화정책에 대하여

가. 오미초 시장관

○ 일반현황

- 개업일 : 2009년4월16일
(2008년12월1일에 일부 개업)
- 시설관리자 : 오미초 이찌방관 관리조합
- 대지면적 : 4,827 m² / 총건평 1만7,349 m²
- 구조 : 지상 5층 지하 1층,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 점포수 : 73점포 (시장전체는 133점포)
- 사업추진방식 : 보조금 +입체환지방식
- 전체사업비 : 56억 6천엔



(34억 9천엔은 정부와 가나자와시에서 지원)

- 주요시설

지하 1층 : 반찬가게,음식점,약국 등 13점포,

1 층 : 청과물가게,음식점등 50점포

2 층 : 음식점 10점포

3 층 : 오미초 교류 플라자, 주차장

4 층 : 오미초 교류 플라자, 주차장

(배움의 광장,시민 서비스 코너)

5 층 : 사무실 플로어



- 시장전체는 290년 역사의 재래시장으로 가나자와시의 중심에 위치하였으나 시장에 접한 국도확장, 시설노후, 하수도정비, 복잡한 소유권정리를 위하여 재개발필요성이 대두(1979년)된 후 소유자간 협의 등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사가 착공된 건 2007년 3월.

- 1979. 4 : 재개발 필요성 대두

- 2002. 12 : 도시계획결정
- 2005. 3 : 사업계획인가
- 2007. 3 : 시설건축물 공사착수
- 2009. 3 : 공사완료 및 인도

○ 사업성과 사업기간은 반비례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들의 느긋함(?)과 소유권이 없지만 시장의 구성주체로서 기존 불법 노점상을 인정하고 지하층에 대한 분양권리를 부여하는 모습에서 효율성에 묻혀 지역의 주체이면

서도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과정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영세상인과 세입자에 대한 우리의 재개발행태를 되돌아보게 함.

○ 오미초 시장관은 전체 재래시장의 일부분에 해당되나 재래시장과 2KM 떨어진 곳의 도서관을 시장과 결합하고 공간의 50%이상



을 문화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하고 집객효과를 높임으로서, 전체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고객층을 노인층에서 젊은 층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였으며 연간 이용자가 600만명으로 재개발사업 전보다 40%이상이 증가함.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구 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과 시설개선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와 집객기능을 무엇으로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해봐야 할 부분임- 시장에 지붕을 얹어 아케이드화 하는 등의 시설개선위주의 노력만으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사실은 1990년대 일본에서 이미 겪은 사항임)

○ 오미초 교류플라자에는 부모와 자녀가 놀 수 있는 공간과 요리실습을 할 수 있는 키친스튜디오, 각종 서클, 학습회, 다도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배움의 광장을 운영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여 시장 주변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전통시장 주변의 대형점포의 입지제한법이 폐지됨(FTA 협정위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대형점포의 입점에 의한 위기감이 증대
→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비전위원회와 판매촉진위원회를 이사회 밑에 두고 각종 이벤트, 축제, 편의시설, 공동택배, 온라인쇼핑 등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어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나. 가나자와 플랫폼버스(소형버스)

○ 일반현황

- 설치배경
 -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옛 골목의 보존
 -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들의 외출지원(정류장 200m간격, 다중이용시설 정차)
 - 도시의 형태가 방사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로방향의 교통연계수단 필요
- 1997년 『가나자와시의 커뮤니티 버스도입 검토 위원회』 설치 후 필요한 노선을 검토선정
- 목 적 :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고령자 복지
- 검토시 문제점 : 저렴한 이용료(100엔)에 의한 적자발생, 차량구입 초기투입비 → 적자 및 정류장, 버스구입비용을 시에서 부담하여 해결
- 컨 셉
 - 만남의 버스 ; 단지 교통의 수단 뿐 아니라 교류의 장소로 이용하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들
 - 모두가 탈 수 있는 버스(barrier free) ; 타는 문, 내리는 문 모두 계단이 없고 장애인도 혼자 쉽게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람과 마을을 잇는 버스 ; 버스가 소형이므로 비좁은 주택가 골목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을의 주요 상점가를 경유하여 쇼핑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 노 선(4개노선)

- 고노하나(此花) 루트 : 요코야스초 상점가 안의 보행자용 도로 통행
- 기쿠카와(菊川) 루트 : 교차로에서 플랫폼스 진입 시 신호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공공 차량우선 시스템 도입

- 자이모꾸(材木)루트, 나가초(長町) 루트

- 특 징

- 고령자도 무리없이 걸을 수 있는 100m를 고려해 버스 정류장을 200m 간격으로 설치
- 1시간에 4편(15분 간격)으로 기억하기 쉽고 쇼핑을 고려해 공휴일 없이 운행



다. 그래서...

- 도시가 성장하고 성장한 도시의 활동을 수용할 기능이 부족하게 되면 도시는 당연히 양적으로나 질적인 확장을 계속한다. 그리고 새로이 확장된 시가지는 구도심과 비교해서 훨씬 좋은 인프라와 시대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 구도심의 자원들을 유인하게 되므로 경쟁력이 낮은 구도심의 인구 유출과 기능쇠퇴는 어찌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른다.
- 하지만 사람들은 신도시에서 느끼는 화려하고 편리함과는 별개로 낯고 느낌에 대한 선망과 향수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한 인구계층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치관변화(가족중심, 핵가족), 5일 근무제 시행에 의한 5도(都)2촌(村)현상이나 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것은 도시에서 적응력이 부족해서 보다는 낯음과 느낌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는 현상이 아닌가 싶다.
- 창조도시의 개념은 선진국이 첨단지식 정보산업에까지 진입한 개발도상국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한 목적으로 90년대 후반 영국에서 발원된 개념이며 역사·

문화적 기반이 약한 개도국이 접근하기 힘든 영화, 음악, 미술 등 그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 산업에 종사하는 인재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구도심이 신도심과 직접적으로 겨룰 수는 없다. 물리적으로 경쟁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성을 자원으로 해서 그것들을 잘 엮고 새로운 것을 가미하여 고민하고 발전시킨다면 새로움과 충분히 경쟁하며 공존 할 수 있고 그 것이 곧 창조도시의 근본 개념을 실현하는 것이며 대외적인 도시마케팅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본다.
- 끝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가나자와시를 보고 못내 가슴 한 켠에 부러움을 가지고 비행기를 탄 것은 나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며 시찰단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무사히 다녀와 감사한 마음을 같이 하고 싶다.



- 돌아오는 날, 고마츠 공항에서